

하늘이 열린다

성경 사도행전 7:54-60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따스한 성령님 (은혜의 찬양 206장)

- 1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 2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후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2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 1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 2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 3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 4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후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말씀 읽기 사도행전 7:54-60

- 5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 55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 57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 58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 59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본문 배경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집사인 스테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 복음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스테반이 전한 내용이 사실이냐며 의문을 가집니다.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자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테반의 설교에 마음이 찢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테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그 순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하는 스테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흥분하여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죄인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스테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결국 스테반은 순교하게 됩니다. 스테반은 죽기 직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60b절)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스테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관찰

1 성령 충만한 스테반이 본 것은 무엇인가요? (55-56절)

답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해설 스테반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54절). 그런 순간에 스테반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55-56절). 본문에 '보다'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합니다(55-56절).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의 눈에는 하늘, 즉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과 가까워지고 하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스테반이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님의 격려와 환영을 받습니다.

2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 가는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60절)

답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해설 스테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외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56절).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죄인이라는 것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테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순교하기 직전에도 성령 충만하여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영생이 있다는 진리를 확고히 믿음으로 환난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적용

1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위로받은 말씀이 있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8-1 의를 위하여

마태복음 5장 10절

♩ = 72

작곡 이종윤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 위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가정 이 아니라 하늘의 지배를 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